

영문법 교육과 교재의 개발에 대한 제언

양 창 용*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문법교육 전환의 필요성 |
| II. 영문법 교육의 흐름과 방향 | V. 결 론 |
| III. 문법 교육과 교재 | |

I. 서 론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교육의 내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시각적 도구, 컴퓨터 매체를 활용한 교육 등 그 외형적인 면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수법의 변화, 언어이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시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언어교육에 있어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영어교육의 중심에서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면서 전통적 문법교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비록 문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문법의 이해와 내용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어 교재에서 영문법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서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더불어 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교사와 학습자의 교육과정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또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시켜주는 촉진자로서의 교재는 언어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영문법 교육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영어교육에 있어 영어 문법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II. 영어 문법 교육의 흐름과 방향

1. 언어 교육적 측면

언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은 언어를 무엇으로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문법과 규칙의 체계로 보았으며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의 변형문법과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대두와 함께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들에게 있어 언어교육은 문법 중심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2언어교육에 있어 문법과 어휘가 강조되었다. 교육방법론에서는 문장의 형태와 구조가 그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교실에서의 학습은 단순한 문형연습(drill)과 반복학습을 통한 정확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한 언어지식의 전달과 습득이 그 목표가 되곤 하였다. 그 결과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소통 상황에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문법 중심적인 접근이 강조됨으로써 언어의 다양한 기능(듣기, 말하기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무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형식적 체계를 중시하는 연구에서 언어의 의미와 의사소통에 관련된 다양한 언어환경과 기능에 대한 설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이전의 형식에 대한 연구(formalism)에 대한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언어교육학자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담화 환경에서의 언어기능에 대한 이해(functionalism)로 연구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중시하면서 단편적이고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했던 언어분석에서 언중의 실질적인 언어행위(linguistic performance)에 바탕을 둔 언어표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언어연구에 대한 이론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틀에서 언어기능 연구의 기본적 전제는 언어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Hymes(1972)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즉, 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체계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유용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언어의 연구에 있어 '맥락'을 중심에 놓고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바로 담화분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외국어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 Widdowson(1979)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 하겠다. 제2언어 교육과 연관지어 볼 때 담화분석은 접근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목표어를 사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을 학습자가 스스로가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난 뒤, 그 영화 속에 흐르는 사회-문화적 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언어학습자들이 자신들이 학습에 필요한 것을 녹음한 후에 거기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들(담화표시어, 억양 등)을 살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담화 연구를 통한 언어교육에서는 목표어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언어연구에 있어 의사소통적인 측면과 언어의 기능과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접근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의사소통 능력이라 함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어의 형식적 구조를 포함하여 언어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능력은 문법적 지식을 비롯하여 담화, 사회 언어적,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Widdowson 1979). 이와 더불어 영어권 사회 문화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재나 교육 방법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분석 대상언어가 문장(sentence)중심에서 담화(discourse)중심으로 변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언어교육은 단편적인 언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화를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담화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언어학적 측면

언어학의 역사적 흐름(history of linguistics)이 보여주듯 어휘나 문법, 그리고 정확한 문장구조를 밝히려는 형식주의(formalism)에서 언어연구는 출발한다. 구조주의시대의 음성-음운에 바탕을 둔 어휘 형태분석을 필두로 연구의 흐름은 변형문법 신화로 이어진다. 전자의 초점은 언어의 체계, 즉 유형과 어순, 단어의 분류와 형태 등 언어의 기술에 맞춰졌고, 후자는 문장 구성 성분 간의 내적 구조(심층 혹은 표층)를 연결시키는 언어표현 또는 언어규칙들의 이해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 이들 접근은 형식적인 규칙체계의 수립에 전적인 관심을 쏟으며 이를 통한 언어 내적인 구조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정립하는 등 언어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전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형식적인 체계를 중시하는 연구에서 언어의 의미와 의사소통에 관련된 다양한 언어 환경과 기능에 대한 설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형식 중심의 언어연구(formalism)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담화 환경에서의 언어기능에 대한 이해(functionalism)로 연구의 폭을 넓혀나갔다(Berk 1999, Biber et al. 1998, Givon 1993, Halliday and Hasan 1985, Renkema 1993, Schiffrin 1994). 이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중시하면서 단편적이고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했던 언어분석에서 언중의 실질적인 언어행위(linguistic performance)에 바탕을 둔 언어표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언어연구에 있어 이론적 접근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을 의미하였다. 즉, 연구의 목적,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형식주의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였다.

언어 규칙(rules)의 체계보다는 언어 사용(use)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면서 문장단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담화 내용이 언어연구의 주된 자료가 되었다. 새로운 틀에서 연구의 근본적 전제는 언어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Tomlin(1994: 144)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언어의 특정 형태(form)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취사선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Linguistic form generally serves to code or signal linguistic function and that shapes taken by linguistic form arise out of the demands of communicative interactions.

Givon(1993:1) 또한 언어연구에 있어 기능적 접근의 근본 취지는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문법은 이를 실현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피력하였다.

[In functional approaches] grammar is not a set of rigid rules that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produce grammatical sentences. Rather, grammar is a set of strategies that one employs in order to produce coherent communication.

언어연구의 기능적 접근에 있어 큰 변화는 사용하는 언어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고 피력한다. Cumming and Ono(1997:112)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Discourse-functional grammarians view discourse - that is, spoken, signed, or written language used by people to communicate in natural setting - as the primary locus for the grammars of the worlds' languages, not only as the place where grammar is manifested in use, but also as the source from which grammar is formed or 'emerges.'

더 나아가서 기능론적 접근에서 연구의 관심은 화자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적 표현들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런 특정한 형태의 의미 해석은 담화를 둘러싼 맥락과 어떤 상관관계에서 추론되는 해석인가?에 모아졌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호작용과 문법(interaction and grammar)은 담화기능 분석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상호작용이 전제된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한 문법교육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어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다(Blyth 2000, Brown 1994, Celce-Murcia 1990, Riggenbach 1999, Thornbury 2000, Weaver 1996). 문법 교육의 변화에 대한 제안에 앞서 다음에서는 교재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Ⅲ. 문법 교육과 교재

1 교재의 의의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재란 무엇인가? 교재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선정되고 조직되는 만큼 단지 교수-학습의 내용을 의미하는 '목표(무엇)'에 그치지 않는다. 교재 개발의 과정에서는 이미 '그 방법(어떻게)'를 고려하여야 함으로써 교재는 교수법과 연관된다. 따라서 교재는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며 학습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교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영어교재 (Material)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배두본(1990)은 교재에 대한 정의를 '협의적' 그리고 '광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 협의적 관점: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경우의 인위적, 자연적 환경을 제외하고, 제2언어와 외국어로 영어를 교수하거나 학습할 경우에 그 직접적인 입력이 되는 언어자료와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정적(static)의미의 영어교재이며, 언어자료와 상황이 교수와 학습활동을 통하여 투입되므로 현장과 전시, 연극 등의 활동도 동적(dynamic) 영어교재라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나 사회가 정한 일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되는 교재가 좁은 의미의 영어교재이다.

- 광의적 관점: 영어의 습득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언어입력으로 학교와 교사 등의 인위적, 형식적 환경과 가정과 사회와 같은 자연적, 비형식적인 환경을 포함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거나 영어를 제2언어, 공용어 또는 외국어로 교수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언어 입력을 지칭한다.

좋은 교재의 개발은 학습효과와 능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겠다. 전체적인 구성 요인들은 문법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때 교재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문법교육을 고려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재 구성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언어 교육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Brown(1994)의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2 언어교육 교재의 구성

어떠한 교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재집필을 위한 기본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교수요목, 수준의 진단 및 평가, 교사 자질 및 학습자에 대한 분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Brown 1994). 이들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Brown(1995:150-151)은 교재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기본 과정을 점검하는 기준을 다음 table 1에서와 같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Table 1 Textbook Evaluation Checklist

-
1. Goals of the course
 2. Background of the students
 - a. age
 - b. native language and culture

- c. educational background
- d. motivation or purpose for learning English
- 3. Approach
 - a. theory of learning
 - b. theory of language
- 4. Language skills
 - a. listening
 - b. speaking
 - c. reading
 - d. writing
- 5. General content
 - a. validity - does the textbook accomplish what it purports to?
 - b. authenticity of language
 - c. appropriateness and currency of topics, situations, and contexts
 - d. proficiency level -- is it pitched for the right level?
- 6. Quality of practice material
 - a. exercises - is there a variety from controlled to free?
 - b. clarity of directions - are they clear to both students and teacher?
 - c.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 is this encouraged effectively?
 - d. grammatical and other linguistic explanation - inductive or deductive?
- 7. Sequencing
 - a. by grammatical structures
 - b. by skills
 - c. by situations
 - d. by some combination of the above
- 8. Vocabulary
 - a. relevance
 - b. frequency
 - d. strategies for word analysis
- 9. General sociolinguistic factors
 - a. variety of English - American, British, Dialects, or international varieties
 - b. cultural content - is there a cultural bias?
- 10. Format
 - a. clarity of typesetting
 - b. use of special notation
 - c. quality and clarity of illustrations

- d. general layout - is it comfortable and not too "busy"?
- e. size of the book and binding
- f. quality of editing
- g. index, table of contents, chapter headings

11. Accompanying materials

- a. workbook
- b. tapes - audio and/or video
- c. posters, flash cards, etc.
- d. a set of tests

12. Teacher's guide

- a. helpful methodological guidance
- b. alternative and supplementary exercises
- c. suitability for non-native speaking teacher
- d. answer keys

3. 교재개발을 위한 환경적 변인

1) ESL vs. EFL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외국어 교육관련 용어 중에 대표적인 예를 꼽는다면 ESL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영어교재관련 광고를 비롯해서 심지어 음식물 이름에까지 이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영어병에 휩싸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ESL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통용되는 데 있다. 상업화된 영어가 가지고 오는 전형인 것이다. ESL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즉 미국, 영국 등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단지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목표언어(target language)가 항상 통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영어학습을 이야기한다.

반면, EFL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교실 이외에서는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 물론 클럽, 책, 등을 이용한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어학습은 ESL환경과 극명한 차이가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Brown이 제시한 EFL 환경에서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살펴보자.

- Use class time form optimal authentic language input and interaction.
- Provide regular motivation-stimulating activities.
- Help them to see genuine uses for English in their own lives.
- Provide plenty of extra-class learning opportunities, such as assigning an English-speaking movie, having them listen to an English speaking TV or radio program, getting an

English-speaking conversation partner, doing outside reading (news magazines, books), writing a journal or diary, in English, on their learning process.

2) 사회언어적 요인

Brown이 제시한 사회언어학적 요소 중에 전자는 영어의 다양성과 관련이 되고 후자는 영미 문화의 이해와 관련이 되어진다. 이 용어 자체는 Canale and Swain(1980)이 제창한 내용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의미는 최소한 세 가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그리고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영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영미문화 이해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영어의 다양성이란 어느 한 특정한 영어, 즉 표준화된 영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독특한 영어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achru(1992)가 주창한 세계의 영어들(world Englishes)란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 하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영어 영국영어에 대한 구별이 대표적 경우라 하겠다.

영미문화의 이해는 영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언어생활 자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반영이라는 것은 문화인류학적인 연구에서도 강조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Sapir-Whorf의 가설은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내용이다. 영미문화의 이해를 위해 구학관(2000)을 잠시 인용해보자.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의 숲으로 비유하고 영어의 개별 표현들 - 즉, 단어, 구, 문장, 문단 등-을 숲을 이루는 크고 작은 나무들에 비유하자면, 문법과 문화는 각각 나무의 줄기와 잎사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법은 모든 표현들의 틀(frame)을 이루고 문화는 그 틀에 들어가는 내용(content)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표현이 영어표현담기 위해서는 문법의 틀에 맞아야 하고 문화도 올바르게 담고 있어야 한다. 줄기와 잎사귀가 상호보완적으로 나무를 이루듯이, 문법과 문화도 상호 보완적으로 언어를 이룬다(p. 95).

...영문법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미국인에게 관심있는 말을 잘 못할 수 밖에 없다.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뼈대)은 있지만, 미국사람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내용(=살)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은 꽤 있지만 영문법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은 말은 이력저력 주워삼키지만 실은 엉터리 영어가 대부분이다(p. 96).

영어교재 집필에 있어 교재를 이용할 학습자, 혹은 교사들을 고려하여 문화의 내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교재가 언어학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문화적 현상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교재의 역할, 교재가 사용되는 상황, 학습자의 목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는 어휘 그 자체뿐 만 아니라 넓게는 전체적인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g. Konglish, friend, senior, speech acts).

IV. 문법교육 전환의 필요성

언어연구에 있어 흐름의 변화는 그 연구 내용과 문법교육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전술한 것처럼, 언어연구의 흐름은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 바탕을 둔 구조주의적 접근에서 그 동안 관심의 영역밖에 있었던 실질적인 언어사용(performance-based)에 근거를 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바뀌었다. 이는 곧 문법교육에 있어 문법은 형식(form), 그리고 의사소통은 단지 의미(meaning)와 연관된다는 일반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문법이라는 개념은 형태와 의미, 의미와 기능 간의 상관적 유대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을 대학 영문법 교육에서 시도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다양한 언어학적 지식이 습득되고, 문법교육에 있어 규범 및 기술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법교육 내용의 전환을 위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학습 자료적 측면

실제 구어 자료에 바탕을 둔 담화 분석적 접근은 언어학 연구와 영어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 의사소통능력의 강조와 함께 문맥화된 자료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구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에 도입되어 쓰이고 있다. 기존의 문어체적 문장 분석 중심에서 벗어나 실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포함한 구어체의 담화가 언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문법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자료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학습 전략적 측면

학습 자료의 전환은 학습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와 다른 언어 패턴이 등장할 의미하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곧 상호작용적 담화 요소들이 문법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elce-Murcia(1990: 136)은 문법의 역할이란 특정한 담화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role of grammar use and its pervasive linkage with discourse and communications). 구어 자료에 바탕을 둔 담화에 민감한 언어적 패턴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라 하겠다.

(3) 학습 내용적 측면

우리가 문법규칙을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화를 못한다는 논리는 문법의 정의상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법이란 언어의 모든 체계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즉, 문법이란 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prescriptive) 개념, 구어 표현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접근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Do you want another

drink? You want another drink? and Want another drink? 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학문법 교육이란 법주는 규범적 개념과 기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장중심의 형태와 의미 관계에서 벗어나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자료의 변화 등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사용에 관련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영문법교육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4) 문법교육에서 교재

교재의 구조와 내용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문법 설명을 자세히 하고, 예문을 드는데 있어서도 전달가치나 현실성이 없는 예문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는 의미나 상황이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자료는 기계적인 연습, 맹목적인 모방과 암기의 대상으로 학생들이 동기유발과는 거리가 있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재의 개발은 풍부한 실 자료(authentic material)를 바탕으로 대화 참여자의 역할, 그들이 나누는 정보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에 의한 전략적 기능과 활동에 강조점을 둔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담화-기능 연구의 한 분야로 문화 간의 화행연구가 외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조화용분석(contrastive pragmatics) 혹은 중간언어 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이라 널리 알려진 분야이다(Blum-Kulka 1983, Olshtain and Cohen 1991). 서로 다른 문화공동체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언어가 실제 생활에 널리 쓰이지 않는 우리의 외국어 교육에서 사회문화적 규범에 맞는 화행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은 꼭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6) 현실적인 대응

최근 권위 있는 영어시험으로 통하고 있는 토플, 토익 등이 시험체계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토플의 경우 말하기를 시험 과목에 포함 시키고 종래의 독립적이었던 문법문제도 주어진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는 담화문법(discourse grammar)의 중요성이 암시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는 곧 의사소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능력, 화용적 능력 등이 문법 능력의 한 부분으로 다뤄져야한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법교육의 근본 바탕이 되고 있는 대학의 영어문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문법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미뤄왔다. 문법교육에 대한 목적이 타당하다면 그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교육 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법교육과 관련하여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문법교육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활성화

화되지 못했다. 어쩌면 그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하였을지 모른다.

V. 결 론

지금까지 논의에서 문법교육과 교재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지만, 문법교육과 교재의 구성에 관한 상호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의 시발점으로 교재개발에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따른 교재개발의 변화에 대한 요구,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 등을 우선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문법 교육의 언어 교육적 언어학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여 보았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문법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만들어 보았다. 자세하고 종합적인 의견은 앞으로 많은 연구에서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구학관. 2000. 영어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서울: testbank21. com
- 배두분.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출판사
- Berk, L. 1999. *English Syntax: From word to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ber, D., S. Conrad, and R. Reppen.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yth, C. 2000. *Toward A Pedagogical Discourse Grammar*. In *Form and Meaning: Multiple Perspectives*, edited by Lee, J. and A. Valdman, 183-229. Boston: Heinle & Heinle Pub.
- Brown, Douglas H.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J: Prentice-Hall, Inc.
- Canale, M. and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elce-Murcia, M. 1990. *Discourse Analysis and Grammar Instruc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1:135-152.
- Cumming, S. and T. Ono. 1997. *Discourse and Grammar*. In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ocess*, (ed.) by T. van Dijk, 112-137 39-52. London: SAGE Publications.
- Givo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liday, M.A.K. and Ruqaiya Hasan. 1985.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chru, Braj B. 1992. *The Other Tongue*.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enkema, J. 1993. *Discourse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 Riggenbach, R. 1999. *Discourse Analysis in the Language Classroom*.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Blackwell.
- Thornbury, S. 2000. *How to Teach Grammar*. London: Longman.
- Tomlin, R. 1994. *Functional Grammars, Pedagogical Grammars, an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Perspective on Pedagogical Grammar*, edited by T. Odlin, 140-17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aver, C. 1996. *Teaching Grammar in Context*. Portsmouth, NH: Cook Publishers, Inc.
- Widdowson, Henry. 1979.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